

실험뉴스

The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News
 March 2020 News 제794호



매년 2월은 대외 활동이 뜸한 시즌이나 올해는 달랐다. 비어와인 판매 문제, 베이핑 제품 편의점 차별 정책 등 핫 이슈들이 넘쳐던 만큼 협회의 대정부 활동을 포함한 대외 활동이 숨실 틈없이 바쁜 한달이었다. 이번호 실험뉴스는 본부협회의 바쁜 외부 접촉과 활약상으로 소식이 넘친다.



www.okbacanada.com Publisher : Jae Gyun Shin / Publication Mail Agreement No : 41140510
 Return Undeliverable Canadian Address to :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169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Tel.(416)789-7891 Fax.(416)789-7834

CROSSWORD

낱말놀이를 즐기며 복권 당첨까지

이번 달에 전면적인
매장 내 POS로 특별 홍보하는
CROSSWORD를 고객들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세 가지 게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 CROSSWORD DELUXE

1등 상금 \$25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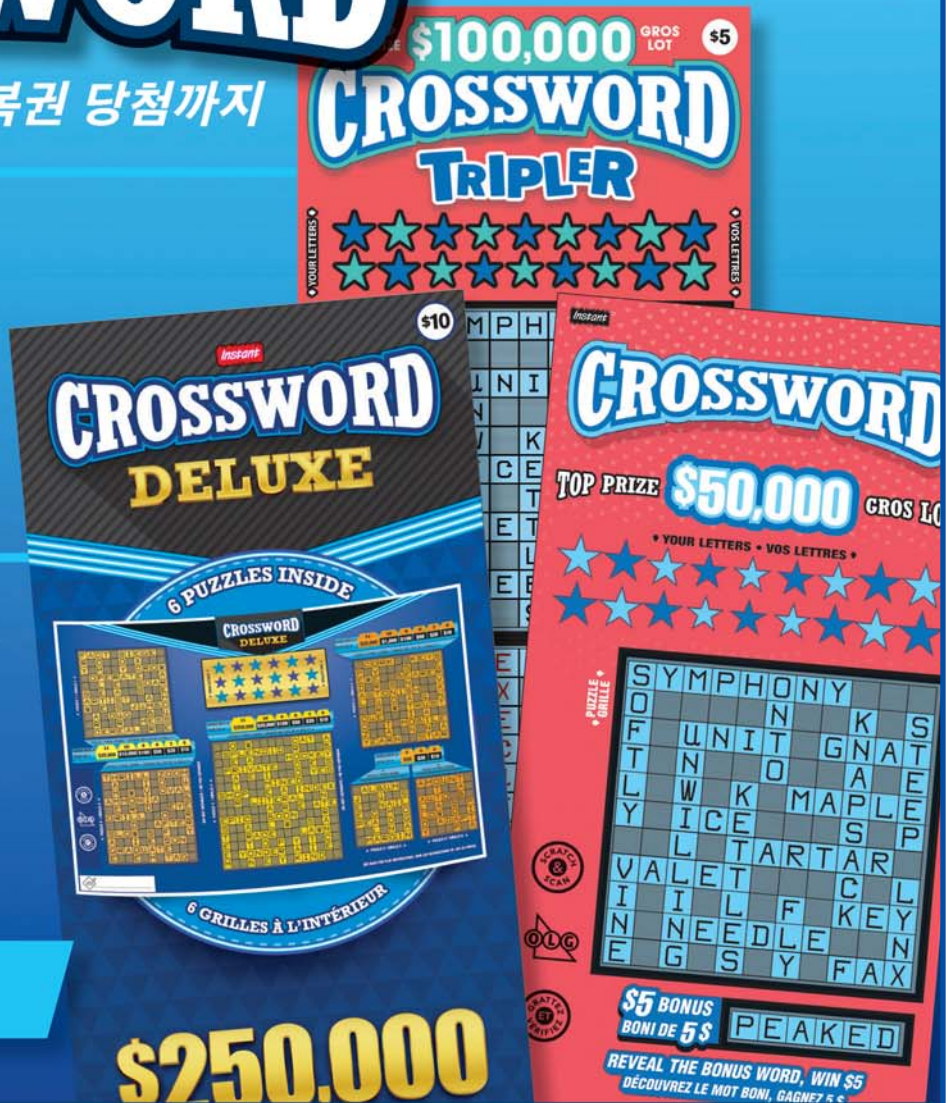
\$5 CROSSWORD TRIPLER

1등 상금 \$100,000

\$3 CROSSWORD

1등 상금 \$50,000

평심하십시오 : 고객에게 복권 구매를 권유하면
2명 중 1명은 복권을 구매합니다!



\$250,000

소매업자 신분 확인

OLG는 복권을 취급하는 모든 복권 소매업자 및 그 직원이 OLG 복권 또는 상품을 취급하기 전에 복권 단말기를 통해 등록함으로써 의무적으로 신분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하려면 복권 단말기의 'Main Menu (주 메뉴)'에서 'OTHER(기타)'를 선택하십시오. 그런 다음 'Retailer Identification (소매업자 신분 확인)' 및 'Complete Insider Identification(내부자 신분 확인)'을 선택하십시오.

OLG와 AGCO는 정기적으로 소매업자 신분 확인을 감시하며, 여러분 매장의 직원 명단이 업데이트된 것이 아닐 경우, \$5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명단을 인쇄하여 점검하십시오. 신규 직원은 복권을 취급하기 전에 명단에 추가하고, 현재 유효하지 않은 이름을 삭제하려면 OLG 지원센터(Support Centre)로 연락하십시오(1-800-387-0104).



■ OKBA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

- OKBA 회장 : 신재균 (Jae Gyun Shin)
OKBA 부회장 : 심기호 (Ki-Ho Shim)
- 홍보팀 : 실장 김광일 (Ted Kim) tongilisysj@yahoo.com
- 사업개발팀 : 이주녕 (Brian Lee) brianjn1108@okba.net
- 회계팀 : 김세환 (Justin Kim) accounting@okba.net
- 디자인팀 : 현미영 (Mimi Hyun) mimihyun@okba.net
- 본부협회 : Tel (416) 789 - 7891 / Fax (416) 789 - 7834

- 이사회 : 이사장 신영하 / 부이사장 김대용
- 감사위원회 : 류승진 / 이만석 / 장육용
- 분과위원회 : 장학 분과 / 회칙 분과 / 특별사업 분과
상벌 분과 / 선거관리 분과

- 지구협회 : <광역 토론토 지구협의회>
(ABC 순) Etobicoke 회장 이두승 (416)895-1277
Newmarket 회장 배명호 (905)642-4644
North York 회장 방성덕 (416)221-7091
Peel 회장 이수봉 (905)813-1333
Richmond Hill 회장 김대용 (905)471-8079
Scarborough 회장 송명현 (416)287-2928
Toronto East 회장 김종범 (416)363-9404
Toronto West 회장 김재숙 (416)975-0365
Weston & York 회장 조용상 (416)604-3116

- <남서부 지구협의회>
Brant County 회장 이효영 (519)442-4143
Halton & Hamilton 회장 오재근 (905)825-8373
London 회장 오세경 (519)432-6672
Niagara Falls 회장 김흥기 (905)354-1313
Waterloo 회장 최상겸 (519)579-8130
Windsor 회장 윤문성 (519)326-1832

- <동북부 지구 협의회>
Durham 회장 이현식 (905)579-2500
Huronian 회장 배종민 (705)436-2248
Kingston 회장 이강정 (613)967-9998
Owen Sound 회장 허창훈 (519)323-4311
Peterborough 회장 이경석 (905)373-0569

■ KBA 협동조합 ■

- KBA 운영이사장 : 심기호 (Kenny Shim)
KBA 부이사장 : 공석
- 총괄부장 : 권혁선 (Hyuk Sun Kwon)
- 사무장 : 배 줄리아 (Julia Bae)
- KBA 협동조합 사무실 : Tel (416) 789 - 7544
Fax (416) 789 - 5013
- KBA 협동조합 매장 : Tel (416) 867 - 1444
- KBA 운영이사(가나다 순) : 김대용 / 류승진 / 백사열 / 송명현
신영하 / 신재균 / 심기호 / 허창훈
- KBA 감사 : 이만석 / 장해민



www.okbacanada.com

온라인을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C O N T E N T S

04 - 06 / OKBA 프로그램스토어 간담회

07 - 08 / 예산 수립 사전 공청회 참가

09 / 중국 커뮤니티 격려의 밤 행사

10 - 11 / 워크숍 겸한 1박 이사회

12 - 13 / 편의점 술판매 어디까지 왔나
한카 FTA 체결 5주년 행사

14 / 퀸즈파크 단독 한인 설잔치 개최
Convenience U 행사 성료

15, 17 / 향가미 베이핑 제품, 편의점 취급 금지

16 - 17 / 매니토바 주, 성과 연계 채권 도입

18 / 세븐일레븐, 7만개 시대

19 / DIRECTORY

20 - 23 / KBA 협동조합 3월 스페셜

OKBA 프로그램스토어 간담회

재도약 위한 냉정한 자가진단 내릴 때



신재균 회장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각자의 역량 진단을 강조하고 있다.

OKBA 프로그램스토어 가입 회원들의 간담회가 지난 2월 6일(목) 노스욕 한식당 사리원에서 열렸다. 오후 1시부터 3시간을 넘기며 진행된 간담회는 이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의지와 자세 등 스스로의 반성을 포함해 진지한 분위기로 일관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5년부터 계약 기간인 3년이 이미 경과한 회원들도 다수 발생해 재 계약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내부 검토를 통해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본부협회 신재균 회장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된 모임이었다.

현재 타 주에서 가입한 업주를 제외하고 협회 회원들은 53개 업체가 가

입해 있다. 3년을 넘기며 드러난 최대의 문제는 가입 회원들이 공급사들이 제시한 조건 이행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편의에 따라 조건 준수(compliance)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외를 만들거나 요구하며 구속력이 약화되어갔다. 구속력의 약화는 당초 혜택을 약속하고 이를 제공했던 공급사들로부터 불신을 얻게 되고 결국 공급사와 맺었던 계약이 하나씩 파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가장 큰 타격은 프리토레이가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으로 프로그램스토어뿐만 아니라 협회 전체 리베이트 계약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작년 말에 일방적으로 통고했었다. 한마디로 기본틀이 흔들리고 형해화(形骸化)되는 것이다.

이 사업의 역사적 단초는 오래됐다. 이미 2012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Expert mortgage advice for:



- Non-Residents
- New Immigrants
- Self-Employed
- Multi-Rental Properties

Mobile Mortgage Advisor
Ken Hyun
416 888-0404
Ken.Hyun@cibc.com



All mortgages are subject to credit approval. **현광환 (한국어로 편하게 상담하세요!)**

박효진 (Roland Park) 

Cell (416)985-5287

- 집, 자동차 단체보험
- 상업용 건물, 가게 단체보험
- Beer & Wine 가게 맞춤형
- 프로그램스토어 특별할인보험

Main (905)770-8828
Fax (905)770-8851
roland.park@brokerteam.ca



실업인협회 단체보험

편의점 경영 악화, 특히 독립 편의점인 협회 회원들의 출구전략을 찾자는 취지에서 수차례 보고회를 가지고 점진적인 틀을 다듬어 마침내 고고한 일성을 올렸던 것이 5년 전이다. 시간이 흐르며 초기의 의욕과 공급사가 대하는 태도는 지금 크게 달라져 있다. 위상 전체가 흔들리는 시점에서 간담회는 적시에 열린 것이다.

사업이 어려워진 결정적 요인은 앞서 언급한 조건 준수 불성실도 문제이지만 애당초 공급사가 요구하는 조건을 이행하기가 불가능한 업소들까지 수용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대상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런대로 운영이 돌아가는 업체가 이 프로그램에 가입해 조건 준수를 성실히 함으로써 업그레이드되어야 하는데 그럴 기본 체력이 약부족인 업소들이 무분별하게 가입해 있다는 것이 전체 흐름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런 처지를 모두 발언에서 신재균 회장은 실감나게 묘사했다. “월 POS 관리비 25불을 낼 형편이 못되는 가게들이 꽤 있어서 3년 재계약을 심각하게 자문해 봐야 한다. POS 장비 할부금과 관리비 등을 협회에 부담시키며 번재능력이 없는 가입자들은 협회와 전체 사업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거취를 정해야 할 때이다.”

신회장은 “냉정히 말해 지금처럼 가면 비전이 없다”고 잘라 말하며 “방향은 맞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왔지만 양보다 질을 우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에 서 있다”고 말했다. 회장은 프로그래머의 현주소를 이렇게 묘사하며 재정비를 위한 시급식을 다음 몇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공급사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진단하고

진퇴 여부를 각자 빨리 정한다. 이 말은 쉽게 달리 표현하면 “조건 준수에 자신 없으면 스스로 가입을 탈퇴하라”는 의미다.

둘째, 담배회사들로부터 좋은 조건을 받기 위해 입증해야 할 우리측의 충족 기준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와 독립편의점의 공급 조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들 경쟁자들과 동일한 혜택을 보기 위해 프로그래머가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담배회사로부터 답을 얻어보자는 말이다.

셋째, 협회 회원 업소의 특성상 프랜차이즈화 할 수는 없지만 간판이라도 통일해서 이미지 일관성을 기한다. 비용 부담으로 인해 과거부터 말은 있었으나 유아무야된 사업이지만 프로그래머만큼은 협회가 부담해서 간판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다.

넷째, POS서비스 질적 개선을 꾀한다. 현재 제휴업체가 모국에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종종 있었던 것을 인정하면서 서비스 개선에 더욱 노력하고 그래도 제휴사로부터의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하면 캐나다 국내로 파트너를 변경하는 특단의 조치까지 고려한다.

다섯째, 직영 매장 시범 사업을 벌인다. 프로그래머의 장점과 매력을 설명회나 안내문을 통해 글과 말로 하기보다 직접 와서 실태를 보고 가입에 동기가 부여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새로 지어서 오픈하면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업주 고령화와 은퇴 희망 등을 고려해 매니저 운

일체형 연동 포스시스템

원슬루선과 함께하면 빠르고, 간편하고, 저렴합니다!

LCBO READY!!

- ALL LOTTERY TICKET SCAN
- DEBIT MACHINE 연동

1SOLUTIONS

DATA CORPORATION



Debit & ATM and POS system

www.1solutions.ca / info@1solutions.ca Toll Free.1(888)554-7355 Korean(ext4) Direct Line.(905) 560-4511. (416)900-7533 Fax.1(888)554-0409

영을 원하는 기존 업소를 인수받아 운영하는 방식을 택한다. 그리고 이는 한계가 아니라 지역적으로 고루 최소한 여러개의 직영 매장을 운영해야 실효성이 있다.

이상이 신재균 회장이 제시한 재도약을 위한 향후 프로그램스토어 사업 운영의 청사진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사업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며 지속한다는 것이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동 사업에 기여도가 없고 조건 준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자진 탈퇴하고 준수능력과 의지가 있는 회원들만 가자는 것이다. 함께 가다가 공멸(共滅)하는 우를 범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전위부대를 통해 결실을 맺고 이들이 구심점이 돼 일반 동료회원들을 견인해가는 미래를 그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청사진이 현실화되기 위해 지금보다 더 철저한 영리적 마인드로 운영되어야 하며 앞서 말한 직영 매장 운영까지 고려한다면 비영리기관인 협회가 아니라 영리 목적의 조합에서 이 사업을 주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다음이신 신재균 회장의 과격적인 제안이었다. 물론 이 주장은 이날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작년 협회 정기총회를 전후해 협회 외부감사인 이방록 회계 법인으로부터 나온 조언이 발단이 됐다. 비영리 단체로서의 특성에 부합하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막대한 리베이트 창출 수익 구조에 의존하는 모습은 잘못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이런 연장선에서 OKBA 프로그램스토어도 협회가 주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까지 이른다.

사실 리베이트 사업에 대한 우려를 이방록 회계사가 이번에 처음 밝힌 것도 아니다. 여러 대 회장을 거치며 자주 언급은 했으나 이번에 좀 더 강력하게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찻찻하게 갈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신 회장이 수면 위로 뚜렷하게 이슈화시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우선 프로그램스토어 사업부터 조합으로 이관해서 실효성있게 운영함과 아울러 비영리 협회 조직 특성에도 맞게 하자는 생각에서 다소 충격적인 제안을 하게 됐다.

다만 조합으로 이관하더라도 업무는 그간 해온 협회 인력이 그대로 이어간다. 외형적인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조합의 경영 마인드와 협동조합을 배경으로 한 장점을 가미시켜 사업을 제대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프로그램스토어 가입 회원은 아직 아니지만 심기호 조합 운영이사장도 신회장과 몇차례 사전 협의를 거쳤고 원칙적인 동의를 한 상태이다. 심 이사장도 발언 기회가 주어져 입장을 전했다. 조합이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프로그램 스토어 사업 성공의 키워드를 “공급사 매출만 성실하게 잘 찍자”로 슬로건화했다.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휴한 업체의 요구조건에 맞게 응하고 이들 제품의 판매는 어떤 일이 있어도 데이터가 100% 남을 수 있도록 해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회장의 말에 이어 심 이사장의 이 말도 큰 공감을 자아냈다. 특히, 조합 배달 시스템에 편승한 편리한 배달 서비스와 데이터 측정신뢰도가 더해지면 사업의 매력이 크게 제고될 것을 강조하자 장내는 크게 고무하는 기색이었다. 심 이사장은 과거 협회와 갈등을 빚은 프랜차이즈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 조합이 주관해 프로그램스토어를 운영할 때 그의 과거지사는 논외로 큰 역량을 발휘할 가능성에 상당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 코카콜라 설명회. 온라인 주문 개선과 가격 변동 정보에 중점적인 소개가 있었다.

한편, 이날 오찬 부패를 겸한 간담회는 공급사 두 곳의 설명회도 있었다. 본 간담회에 앞서 코카콜라 관계자들이 향후 가격 정책과 온라인 서비스 개선에 관해 설명했다. 올해 시차를 두고 나올 신제품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 참석자들로부터 온라인 주문의 불편함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설명 후에는 특정 브랜드들이 시중의 가격보다 비싼 이유 등 일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놓고 개별 질의 응답도 가졌다.

또 다른 공급사는 임페리얼 토바코였다. 온타리오 동부담당 주재일 매니저가 협회의 특수사정을 감안한 맞춤형 전략 수립에 대한 조언을 제시해 집중적인 관심을 모았다. 아버지가 회원이기도 한 주씨는 유창한 한국어로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주며 프로그램스토어에서 한 걸음 나아가 협회 전체가 타 체인사나 소규모 배너 스토어에 비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강조했다.



▲ 임페리얼 토바코의 설명회. 회사 관계자는 자사 마케팅 대신 협회와 프로그램스토어사업 발전을 위한 조언을 하는 이색적 프레젠테이션으로 참석자들로부터 깊은 공감을 끌어냈다.

프로그램 스토어와 관련해서는 포지셔닝을 올바르게 잡고 공급사의 조건 이행을 내부적으로 확실하게 다져서 대응할 때 결실을 맺을 수 있고 가입 회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수라 하더라도 확실한 약속 이행이 더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여러 편의점 그룹들의 업소 당 평균 매출액을 비교해보면 가맹 수의 많고 적음이 비례해서 전체 매출액의 규모를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은 통계수치로도 증명되고 있다. 내부 결속력의 문제이고 제휴사와의 이행조건 준수 성실도가 막중한 의미를 가지게 됨을 제삼 일깨우는 대목이다.

(9면에 계속)

예산 수립 사전 공청회 참가

재무장관과 유일하게 단독 면담




32번째 발언자로 나선 심기호 운영이사장이 편의점 업계 핫 이슈들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조 장관, 필립스 장관, 스카보로 에이전트코드가 지역구인 바비키안 의원이 앉아 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온주 정부 예산 수립에 앞선 사전 공청회 (pre-budget consultation)가 지난 1월 31일 (금) 스카보로 소재 향군회 제 614지구(Royal Canadian Legion Branch 614)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재무부가 예산 심의에 앞서 수많은 이익단체들 중 이해당사자 여론 수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43개 단체를 엄선한 초청 공청회 성격의 모임에 협회도 초대됐다.

모든 편의점에 비어 와인 판매를 개방하는 정부 정책을 학수고대하고 있고 이런 사정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는 조성준 노인복지부 장관의 배려로 이 공청회 초대에 협회가 선정됐다. 공청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이유는 협회의 간절한 희망사항을 표명할 공개적인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로드 필립스 재무장관을 독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43개 단체 초대 명단에 올린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초대된 이 단체 중 유일하게 협회만 재무장관과 면담을 할 수 있는 것은 조 장관이 다리를 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단체별로 각 한명 혹은 두명이 배정됐으며 총 6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저녁 6시부터 행사가 시작됐다. 협회측은 신재균 본부협회 회장과 심기호 최고운영이사 겸 조합 운영이사장이 참석했다. 각 기관마다 입장 발표 시간으로 3분씩 주어졌고 협회는 32번째였다. 발언자로 나선 심이사장은 협회를 간략히 소개한 후 불법담배와 대형유통매장의 난립으로 스몰비즈니스의 대표적인 편의점 경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비어 와인 확대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지를 역설했다. 특히 협회와 같은 독립 편의점은 정보력과 자금력에서 열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 정책의 조기 실현을 촉구했다. 공청회에 정부측 인사로는 3명이 자리했다. 본 행사의 총 사령탑



아담유 합동 법률그룹

Adam Yoo Stigler Nguyen & Associates

각 분야 전문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여러분의 법률 문제를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립니다.

**교통사고
개인상해 보상 청구**

교통 사고
낙상 (Slip & Fall)
장기상해
(Long Term Disability)
개에 물린 사고
정부과실 사고

교통위반 티켓

과속, 부주의 운전
무보험, 무면허
신호위반, 뺑소니 등
모든 교통 법규 위반

형법

음주운전, 폭행
절도, 사기, 마약
흉기 소지, 살인 등
모든 형법 위반

▶ 교통사고보상청구 ▶ 개인상해 보상청구

▶ 형법 ▶ 가정법 ▶ 민사소송


▶ 이민법 ▶ 교통위반 티켓

▶ O.D.S.P 신청(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
1년 이상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시 청구 가능.

**“강력한 실력, 오랜 경력,
섬세함으로 모든 법률 문제 해결”**

변호사: Leonard Stigler,
Mai Nguyen, Barry Edson

법무사: Adam K. H. Yoo, Narae Han,
David Song, Hassanein Bhaloo



T : 416.739.8887 / 647.891.8867 / F : 416.739.7559

#100-1018 Finch Ave. West, Toronto

이라 할 로드 필립스 재무장관, 스카보로가 지역구인 조성준 장관, 그리고 또다른 스카보로 지역구 출신 아리스 바비키안 의원(Aris Babikian) 등 3명이 나란히 앉아 마주 대하고 발언자들의 연설을 경청했다. 바비키안 의원은 지역구가 스카보로 에이진 코트 Scarborough-Agincourt이다. (*조 장관 지역구는 스카보로 노쓰, 필립스 장관 지역구는 에이잭스)



43개 단체 중 유일하게 재무장관과 단독 면담이 주어졌고 3분 스피치에서 세밀하게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장관에게 전해지고 있다.

8시 20분에 모든 단체의 연설이 끝났고 조장관의 주선으로 마련된 협회와 필립스 장관 사이의 단독 면담이 홀 한쪽에서 자연스럽게 선 자세로 어울려 격의없이 진행됐다. 15분간의 면담을 통해 앞선 3분 스피치에서 자세히 전달하지 못한 협회의 애로점을 두루 전할 수 있었다. 장관은 과거 온주북권공사(OLG) 사장을 역임하면서 협회를 잘 알고 있었고 작년

에도 협회 임원들과 얼굴을 익힌 바 있어 구면이었다. 또, 면담을 주선해 준 조성준 장관하고도 막역한 사이여서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주요 사안에 대한 입장을 교환할 수 있었다. 사실 협회의 비어와인 판매 성사는 협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편의점 업계 전체를 대변하기 때문에 선도적 위상을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평가될 것이다.

한편, 단체별 3분 스피치 중간에 정부 공보실에서 나온 취재팀이 43개 단체 중 몇개의 단체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영상에 담았는데 이 인터뷰 역시 협회가 포함됐다. 3분 공식 스피치와 장관 독대 면담에서 언급한 주요 내용의 핵심이 동일하게 전해졌고 베이핑 제품의 공정한 판매 경쟁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공청회 중간에 보건부측이 전문 베이핑습과 편의점의 차별화 판매 정책을 공식화했다는 불길한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융통성있게 이를 언급했던 것이다.

베이핑습 단체는 이미 대정부 로비를 통해 편의점 업계를 배제하고 자신들의 차별적 혜택을 누리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들의 바람과는 배치되는 연방 정부의 통계가 이미 나와 있어서 온주 보건부가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크다. 연령체크 성실도를 비롯한 법률 위반 관행은 편의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된 바 있다. 이 사실도 이번 공청회에서 협회는 집중 부각시켰다.

어렵사리 마련된 사전 공청회 발언 기회와 재무장관 단독 면담 등을 통해 편의점 업계의 현안 긴급 이슈를 상세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의미깊은 모임이었다. 무엇보다도 비어와인 정책 소관 부처인 재무부 수장과의 대화에서 간절한 희망을 전했다 만큼 성과가 기대되지 않을 수 없다. ■

2020년 3월 20일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

2020년 3월 2일 ~ 4월 24일

장소: KCWA 캐나다한인여성회 벡더스트-핀치 540 Finch Ave. West Toronto

CVITP(Community Volunteer Income Tax Program)란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과 지역사회 기관들이 협력하여 일정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개인과 가족에게 무료로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소득기준	서비스 제외대상	문의 및 전화 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가구 \$36,000 이하 2인 가구 \$46,000 이하 3인 가구 \$47,500 이하 4인 가구 \$52,000 이하 5인 가구 \$52,500 이하 * 1인 추가당 \$2,500씩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영업자 연간 이자소득 \$1,000 이상인 경우 임대소득 발생 경우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2019년도 부동산 매매의 경우 파산신청의 경우 사망자에 대한 세금보고 \$100,000 이상의 해외 자산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KCWA 캐나다한인여성회 416-340-1234 UNISON Health & Community Services 647-436-0385

※ 신청일자: 2020년 2월 3일부터 벡더스트-핀치: 화, 목, 자(시간 및 토요일 운영)

※ 신청처: www.kcwa.net

뼈 건강 지키기 - 골다공증, 관절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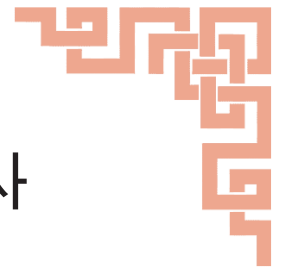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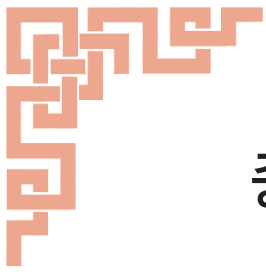
- 일시: 3월 9일 (월) 오전10시 - 오후12시
- 장소: KCWA 벡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정착상담원 주명숙 (문의: 416-340-1234)
- 내용: 1. 골다공증에 대하여
 - 골다공증의 원인과 증상
 - 실생활에서의 골다공증 예방
- 2. 관절염에 대하여
 - 관절염의 원인과 증상
 - 실생활에서의 관절염 예방

웰컴 투 캐나다 - 캐나다 시민권 시험 준비반

- 일시: 3월 12일, 19일, 26일 (목) / 총 3회기 오전10시 - 오후12시
- 장소: KCWA 벡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정착상담원 박민희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웰컴 투 캐나다
- 2. 내가 살고 있는 온타리오 이해하기
- 3. 캐나다 시민의 권리와 책임
- 4. 캐나다의 역사, 근현대사, 정부, 사법시스템
- 5. 캐나다의 상징, 경제, 지리

시민권 신청 안내

- 일시: 3월 12일 (목) / 오후6시 - 오후8시
- 장소: KCWA 벡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정착상담원 최성혜 (문의: 416-340-1739)
- 내용: 1. 캐나다 시민의 진정한 의미
- 2. 캐나다 시민권 신청 자격과 절차
- 3. 시민권 시험/인터뷰/선서식
- 4. 시민권 신청서 작성 안내



중국 커뮤니티 격려의 밤 행사



▲ 마이크 앞은 조성준 장관이고 그 뒤로 크리스틴 엘리엇 장관이 보인다. 왼쪽은 스카보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바비키안 의원이다.



중국 커뮤니티 격려의 밤 행사가 지난 2월 5일(수) 스카보로 소재 중국 식당 로얄차이니스레스토랑(The Royal Chinese Restaurant)에서 열렸다. 중국계와 다른 아시안계 등 거의 200여 명이 모여 인종과 국적을 떠나 하나임을 확인하면서 우애를 과시한 행사였다.

이같은 행사가 개최된 배경은 최근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다.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인 규모로 전파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과 해외의 중국계 거주자들을 상대로 공공연한 민족 혐오감을 보이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확산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 중국계 캐나다인이 운영하는 비즈니스가 쏠쏠 얼어붙어 경제적 타격이 심각하다. 스카보로 지역은 특히나 중국계 거주자와 비즈니스가 집중돼 있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영향이 크다.

지역구가 스카보로 노쓰(Scarborough North)인 조성준 장관이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자 중국 커뮤니티를 격려하고 같은 아시안계가 동병상련의 감정을 나누며 고무해주자는 의미에서 앞장서 행사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행사 시작 시간인 오후 5시에 이미 식당이 꽉 들어찰 정도로 열기는 뜨거웠다. 협회에서 본부협회 회장, 조합 운영이사장을 비롯해 스카보로 지구협회 회원들이 대거 참석해 20여 명 가까운 인원이 함께 했으며 중국편 의점협회 간부들과 홍콩계 담배회사 퍼스트차이나토타코 관계자 등 중국계 인사들 4명을 초청해 함께 식당을 찾았다.

저녁을 먹으며 진행된 격려사에서 조 장관은 악성 루머를 유포해 특정 인종 혐오감을 부추기는 아만적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신종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차분한 자세를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온주 부수상을 겸하고 있는 크리스틴 엘리엇 보건부장관도 격려에 힘을 보태기 위해 방문해 위로의 말을 전했다. 조 장관과 같은 지역인 스카보로 에이진코트 지역구 출신 같은 보수당 소속 아리스 바비키안(Aris Babikian)의원도 함께 했다. 협회는 이날 행사를 위해 1000달러를 기부했다. ■

〈6면에 이어〉 OKBA 프로그램스토어 간담회

간담회는 4시 30분에 마무리됐다. 신회장의 말대로 각자 재계약할 여력이 있는지를 명확히 진단하고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스토어 사업 전체의 유지 발전에 전혀 기여할 수 없다면 본인의 업소에도 도움이 없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회의 끝부분에 간판 통일화 작업 관련한 디자인 시안 9개를 소개하기도 했고 관리비 등 대금 결제 자동 이체(void cheque)시스템에 대한 안내도 있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프로그램스토어 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

워크샵 겸한 1박 이사회

부인들도 적극 동참, “여성의 밤 개선하라!”



▲ 이사회 다음날인 14일(금) 오전에 개최된 워크샵 분임토의에서 두 팀이 열띤 토의를 벌이고 있다.

본부협회 제 2차 정기이사회가 파격적으로 협회 사무실을 떠나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의 한식당 연회실에서 열렸다. 지난 2월 13일과 14일 양일간 폭포 인근 호텔에서 1박을 하며 워크샵까지 겸해 강행군을 벌인 이사회였다. 파격은 그뿐이 아니었다. 참석 가능한 이사들의 부인까지 대동해 부부가 함께 하는 이사회로 진풍경을 연출했다.

아이디어는 본부협회 신재균 회장이 연초부터 입에 올렸다. 무보수로 고생하는 이사들을 격려하고 협회에서 남편들의 활동상이 무엇인지 부인들이 직접 체험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협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내적 결속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이었다. 효과는 기대 이상이 었다. 협회 이벤트 행사 수준 제고를 위한 부인들의 고언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으며 공급사 설명회에서는 남편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보였다.

폭포 주변의 한식당 ‘영가든’ 1층 연회실을 회의실로 꾸며 13일 (목) 오후 3시부터 이사회가 시작됐다. 폭설의 불순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참석 가능을 통보했던 이사 전원이 거의 제 시간에 당도했다. 회의는 김대용 부이사장이 진행했다. 신영하 이사장이 부인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장례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회의 시작 전에 이사들은 신 이사장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애도했다.

30명 재적 이사 중 21명이 참석했으며 공식인 본부협회 부회장으로 심기호 조합 운영이사장이 선출됐다. 부회장 1인 체제로 바꾼 후 자리를 유지하던 송명현 부회장이 최근 스카보로 지구협회장으로 선출되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부회장 자리를 사퇴해 공식이 된 자리를 보궐한 것이다. 거수 표결에 부처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신임

심기호 부회장의 임기는 2차 정기이사회가 열리는 이날 13일을 기준으로 시작됐다. 이로써 심 부회장은 조합 운영이사장과 협회 회장단의 일원으로 양쪽의 중책을 겸하면서 공식적 활동의 외연이 더 넓어지게 됐다.

이어서 신재균 회장으로 부터 그간의 본부협회 차원에서 진행된 주요 활동과 소식이 전달됐다. 핵 폭탄급 소식으로 프리도레이, 네슬레 등 협회 살림살이의 근간인 리베이트의 큰 몫을 제공하던 회사들이 리베이트를 단절한다는 내용이 회의의 시작을 긴장하게 했다. 두 회사의 리베이트는 협회 예산 수입에서 결정적인 불륨인만큼 타격이 매우 크며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은 귀박은 회원들에게 알려져 있던 사안인데 이번 이사회에 대비책 강구를 위해 공식 안건으로 올려진 것이다. 이는 다음날 오전 일정으로 잡혀있는 워크샵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입에 올랐다.

다음으로 비어와인 관련한 대정부 로비 진척 상황, 예산안 관련 사전 공청회 참가, OKBA 프로그램 랩스토퍼 간담회 관련 내용이 소개됐다. (관련 상세한 내용은 본 호 기사들 참조)

한편 남성들의 회의가 시작되면서 동반한 부인들은 연회실 별도의 방에 모여 상호 친목다지기와 함께 협회 이벤트 행사 특히 여성의 밤 행사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나름 진지한 회합을 가졌다. 이사회가 마무리되고 연이어 부인들의 대표로 전임 이사장이자 현 이토비코 지구협 이두승 회장의 부인이 여성의 밤 행사 개선책을 제시했다. 집행부는 물론 모든 이사가 이 긴장 모드로 경청했다. 참석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증정품의 격을 떨어뜨리지 말라는 주문과 아울러 고가가 아니더라도 많은 참석자들이 탈 수 있는 경품으로 컨셉 자체를 바꾸려는 질타성 조언은 뼈아프게 들리는 대

목이었다. 집행부는 올해 행사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 11명의 부인들이 함께한 이사회에서 남편들이 회의가 한창일 때 별실에서 여성들은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토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한시간 정도 남기고 공급사 프레젠테이션 시간이 할애됐다. 최근 전자담배를 놓고 치열하게 시장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주올사와 임페리얼이 시간차를 두고 제품 설명을 했는데 정작 임페리얼은 자사 제품 설명보다는 협회와의 윈윈을 위한 포괄적 전략 수립의 방향에 대한 조언에 집중해 관심을 모았다. 이는 지난 2월 6일 있었던 OKBA 프로그램스터어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이었다. 또한 연방의 담뱃갑포장통일화 정책 시행으로 인한 기존 담배 재고 물량 반품에 관한 요령도 집중적으로 소개해 도움을 줬다. 협회를 위해 대정부 로비를 대행하는 그래스루츠 대표 피터 시먼은 정부 주요 인사들과 의원들을 상대로 서신 보내기 캠페인을 펼치는 것과 관련한 행동 수칙과 견본 편지 등을 소개했다. 특히, 편의점을 차별하며 베이핑 전문 업체에만 유리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보건부의 정책을 경계하는 방향에서 정부에 어떻게 호소하고 이슈화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한 브리핑이 있었다.

회의를 모두 마친 이사들은 회의석상에서 미처 충분히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이어진 저녁 식사 시간에 계속 나왔다.

열기 후끈한 워크샵

다음날 조식을 호텔에서 일찍 끝낸 이사들은 전날의 식당 연회실 회의 장소에 다시 모여 9시부터 워크샵에 들어갔다. 이미 전날 이사회에서 충분히 다뤘고 미리 아이디어를 생각해 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대화는 활발했다. 효율적 워크샵을 위해 두 팀으로 분임 토의 형식을 취했다. 협회 로고 상징을 차용해 한 팀은 꼬꼬댁뎀, 또 한 팀은 부엉이팀으로 재미있는 이름을 짓고 두시간이 넘는 자유토론을 가졌다.

주제는 협회의 발전 방향과 미래 비전이고 구체적인 이슈로 크게 4가지를 범주화했다. 첫째, 회원확대방안, 둘째, 공급사 리베이트 단절 대책, 셋째, 협회의 프랜차이즈화, 넷째, 조합의 미래로 정리했다. 토의 진행의 질서를 위해 각 팀별로 팀장도 정했고 대화 내용을 기재하고 요약정리할 서기도 정했다.

두서도 없고 현실가능성을 도의시해도 좋았다. 브레인스토밍에 가까운 허심탄회한 속마음이 가깝없이 쏟아져 나왔다. 이사회나 총회와 같은 격식있는 회의는 늘 발언권을 얻고 또 짧은 시간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야 하는 제약이 따르나 이날의 워크샵은 일말의 제약도 두지 않았다. 마음껏 평소의 생각과 소신을 펼칠 기회였다. 대화가 열기를 띠다보니 두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호흡이 가빴다.

정확히 2시간 30분의 토의가 있었고 15분동안의 발표 정리시간이 주어졌다. 각 팀별로 발표자가 나와 수렴된 팀의 견해를 소개했다. 양쪽이 제시한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젊은피 수혈을 위해 지구협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가입 대상자를 발굴, 편입시키고 기존 회원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 앞장선다. 기준이나 규정을 따르지 않는 회원에 대한 자격과 대우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며 타민족 가입 가능성을 열어둔다.

● 회원 확대 방안의 하나로 업종을 제한하고 문호를 개방해 회원 배가 정책을 펼친다. 대표적으로 요식업을 추가한다. 준회원 제도를 활성화해 비 편의점 한인 주요 업종을 포섭한다.

● 프로그램스터어 활성화는 메이저 담배회사로부터 파격적 혜택의 조건을 얻어내 이를 통해 가입 회원 증대 효과를 도모한다. 공급사 조건 준수 불이행시 모든 협회 이익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일반 협회 캠페인이나 행사에 비협조적인 경우에도 여하한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제도적, 관행적 기강을 확립 시행해 나가야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 있는 당근을 확실하게 챙겨주자는 표현으로 정리함)

● 대 공급사에 대한 협회 위신 강화를 위해 특정 기간, 특정 브랜드에 대해 일치 단결해 주문 거르기로 상징적 불만을 표출한다. 존재감을 드러내기세만이라도 보일 때 공급사의 협회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구협회장의 소속 회원 설득력과 통솔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법적인 차원의 프랜차이즈화를 할 수 없는 것이 비영리 조직으로서의 협회 특성이므로 개별 업소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단체의 힘을 모으는 방향으로 나간다.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특가 세일에 일시분란하게 따르는 모습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대정부 로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특장은 계속 살려나가는 것이 옳다.

● 조합은 신상품 개발과 상품기획이 존망의 관건이며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경영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비즈니스 마인드와 프로페셔널리즘으로 무장된 경영체제를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이끌 전문가로 내부 즉 조합원도 가능하고 외부 영입도 가능하다. 불필요한 조건을 두지 말고 개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다만, 외부 영입의 경우 이사회가 통제할 최소한의 합리적 요건을 갖춰야 할 것이다.

이상이 워크샵에서 양 팀이 발표한 내용의 요약이다. 워크샵 한번 개최해서 나온 이야기들이 곧바로 협회와 조합의 주요 정책 결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선부른 기대이다. 이는 이번 행사를 주관했던 집행부와 이사회장단도 느끼고 있던 바이다. 다만, 아무런 구속과 제약없이 자신들의 생각을 흔쾌히 밝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사고의 유연성과 창의성 그리고 조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심화시키는 계기를 접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보람이자 가치라는 점이다.

발표 시간에는 부인들도 함께 자리를 하며 경청했다. 신재균 회장은 “부부가 함께 한 이사회와 워크샵의 의미는 형식의 파격미도 주목할 만하지만 내용적으로 풍부한 결실을 거뒀고 마음이 혼연일체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평하며 크게 만족했다. 이사들은 함께 점심을 들며 이사들은 정담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됨임을 거듭 확인했다.

협회가 이사들의 워크샵을 개최한 것은 거의 15년 만의 일이다. 2006년 전임 윤종실 회장 시절에 1박으로 워크샵을 개최한 것이 처음이었다. 이번에는 이사들만이 아니라 부인들까지 함께 하는 진일보한 모습을 보인 것이 차이라면 차이였다. ■



지난 1년의 추진 경과

온주 정부의 편의점 비어 와인 판매 정책이 다소 주춤한 형국이다. 작년 한해 호기롭게 뚝가 진척이 되는 듯 했다. 예산안 발표와 몇몇 예산 설명회에서 당시 빅 피델리 재무장관이 전면 개방을 약속하며 열렬한 환영을 받기도 했다. 이후 LCBO 소형 아웃렛 형태의 간이판매소 (LCO ; LCBO Convenience Outlet)가 들어설 후보지 명단이 몇차례 발표되면서 기대감은 더 상승했다. 하지만 LCO는 GTA지역은 배제된 외곽 지역에 국한했고 정작 영업이 어려운 편의점 밀집 지역인 GTA는 애가 났다.

사실 협회 회원들 중에 상당수가 이미 가게 운영을 접으려다가 주류판매라도 성사되면 계속 하거나 권리금이라도 제대로 건지고 비한인에게 넘기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가 바뀌었고 조금씩 지쳐가는 모습이고 모든 편의점에 개방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질문이 쇄도하고 있다.

협회는 작년 연초부터 정부 여당 정치인들을 접촉할 네트워킹 기회가 올 때마다 임원들이 거의 모든 행사에 참가해 비어와인 문제를 거론했다. 3월 달에 당시의 빅 피델리 재무장관이 선거 공약의 하나이기도 했던 이 정책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장담했다. 편의점, 대형유통업체, 식품점으로 술 판매가 확대될 것이라는 약속의 재확인이었다. 이는 가격 인하와 소비자 편의 증대라는 명분을 강조해왔던 보수당 기본 정책의 구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외부 용역을 준 객관적 자료들도 술판매 채널 확대 정책을 강력히 뒷받침했다. 경제 규모와 인구를 보더라도 온타리오에 크게 밀리는 퀘벡이 민간 술판매소-대부분이 편의점-가 8,000여개인데 온타리오가 3,000개를 밑돈다. 전국적으로 인구 당 술판매소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자료는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명확히 확인시켰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조성준 노인복지부 장관의 지역구 예산 설명회가 있었던 4월 12일 이른 아침부터 160여 명의 회원이 몰려와 큰 지지를 보냈고 피델리 재무장관과 조 장관에게 꽃다발까지 전하며 보수당 정권의 개방적 술판매 정책에 아낌없는 성원을 쏟았다.

5월이 되자 정부는 비어스토어(The Beer Store)와 이전 자유당 정권이 맺은 계약 종료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술판매 편의점 확대가 성사되기 위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선결과제가 이것이었다. 비어스토어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적 장치였기 때문에 이를 먼저 해제해야 하는 것은 정부로서 밟아야 할 당연한 수순이었다. 비어스토어와의 계약이 파기되면 정부는 10억 달러의 위약금을 배상해야 하는데 이것을 피하고자 하는 법안이었다. 계약 기한은 2024년까지로 돼 있었다. 새 정부는 진퇴양난의 길목에 서있는 셈이었다. 비어스토어의 독점적 지

위를 것은 대용량 맥주 - 12팩이나 24팩 - 를 사는 곳이 이곳 뿐이라는 사실 하나로 잘 알 수 있다.

정부가 계약 파기의 움직임이 보이자 예상대로 비어스토어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캐나다 자본도 아닌 해외 3개 자본이 틀어쥐고 있는 비어스토어는 많은 일자리가 날아갈 것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며 협박성 저항으로 나섰다.

그랬거나 말았거나 6월에 들어서며 보수당 의원들은 기세 좋게 트위터 등 SNS까지 활용하며 온주 주민들의 술 구입 채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외쳤고 현재의 독과점 술 판매 제도를 맹 비난했다. 협회도 이에 화답했다. 6월 6일 정부가 술판매 확대 정책의 일단을 발표하자 때를 맞춰 기대감과 지지의 표시로 본부협회 신재균 회장의 선도하에 자신의 업소앞 1인 시위 캠페인을 벌였다. “술을 팔고 싶다!”는 간절한 문구가 적힌 손 피켓을 들고 벌인 보기 드문 친정부 지지 캠페인은 정계에서도 화제가 됐다. 거의 130여 명의 회원이 참가했고 모든 장면들은 수상 보좌관실에도 전해졌으니 이목이 집중될 만한 사건이었다.

어디 그뿐이었던가, 수상까지 나섰다. 디그 포드 수상이 광고 모델로서 비어와인 판매 확대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공익 홍보 캠페인 광고 촬영까지 했다. 게다가 촬영지는 두명의 협회 회원 업소였다. 연기는 매우 자연스러웠다. 담배사러 온 손님에게 “우리 정부가 온주 주민들이 술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을 지역 편의점 등 더 많은 곳에서 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을 건넸고 광고가 전파를 타면 대박일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 비어스토어의 생각과는 달리 민심은 이랬다.

그런데 뭐가 다 돼가는 듯 하던 그 순간부터 이슈가 이슈를 덮는 현상이 벌어진 것인지 이후의 진척을 알 수 없는 오리무중으로 빠져 들었다. 잘 보이던 물체가 레이더에서 사라진 듯한 모습이랄까. 아마도 8월에 신임 로드 필립스 재무장관이 토론토 선(Toronto Sun)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 마지막이었을 것이다. 그 때 장관은 정부가 여전히 비어와인 판매채널 확대 이슈를 열심히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LCBO 지휘하에 민영 LCBO간이판매소(LCO)의 단계적 확대를 언급하며 술입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보다 책임성있는 방향으로 확대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그리고 이후로 뭐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알 수 없는 시간이 6개월을 넘기고 있다. 모든 편의점에서 술을 팔 수 있다는 희망은 여전히 무리인 것일까. 정부가 모종의 난관에 봉착해 모멘텀을 상실한 것은 아닐까 많은 의구심이 든다.

그래도 협회는 공식, 비공식 회의때마다 “정부가 많은 애를 쓰고 있다.”, “정부의 의지를 북돋기 위해 협회가 더 열성적인 지지를 해주자” 등의 결의를 다져왔고 본부협회 신재균 회장의 주창에 따라 작년 12월에 모든 회원들 업소를 통해 편의점 술판매를 촉구하는 포스터 부착 캠페인까지 벌였다. 비록 소강상태에 빠져 있는 이슈이지만 그만큼 정부를 신뢰하고 있

는 것이다. 출구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저쪽에서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온주편의점협회(OCSA)는 늦어도 올해 여름 전에는 뭐가 나와도 나와야 할 것이라고 못을 박고 있다.

한편, OCSA(회장 데이브 브라이언즈)도 최근 뉴스레터를 통해 “정부의 더딘 속도에 적지않은 실망감을 느낀다”면서도 정부가 여전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싶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마도 비어스토어와의 협상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최근 업계로부터 편의점 비어와인 판매 이슈와 관련해 업데이트된 내용을 요구받은 재무부 대변인 마크 피셋씨는 정부가 지금도 비어스토어와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고 확인해줬다. “상호 만족할 수준의 결론에 도달해야 하며 공통의 기준은 소비자 선택폭 확대와 편의성 제고이다. 큰 틀은 합의가 됐는데 세부 각론에 들어가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다.” 대변인의 말이다. 역시 예상한 대로 비어스토어와의 협상이 결정적 걸림돌인 것이다. 그의 말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다. “정부가 이 문제를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고 있고 술 판매를 통해 비즈니스 확대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성사시켜야 할 과제여 여기고 있다.” ■

한카 FTA 체결 5주년 행사

협회 UKCIA 임원 자격으로 참석



▲ 한카자유무역협정체결 5주년 기념행사에서 넬리 신 의원과 상건례를 가졌다. 가운데는 신맹호 대사, 그 우측이 신 의원이다.

올해는 대한민국과 캐나다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한 지 만 5년이 되는 해다. 지난 2015년 1월 1일 부로 발효된 이후, 두 나라 사이의 교역량은 연평균 2% 가까운 증가세를 유지하며 전체 교역량 증가율 1%를 크게 웃도는 양호한 실적을 보여왔다.

이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오타와에서는 지난 2월 18일(화) 오후 6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5주년 행사 기념식을 가졌다. 캐나다 외무부

와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이 공동 주관하고 한카 친선 의원연맹(CKIFG : Canada Korean Interparliamentary Friendship Group)이 후원한 행사에는 양국 관계자들 200여 명이 모여 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교역 및 우호 증진을 다졌다. 행사장은 상원 임시 본관 건물(Senate of Canada Building) 소 회의실이었으며 현재 본관 건물이 내부 수리인 관계로 근처로 옮겨 사용 중이다.

협회에서는 캐나다한인상공실업인총연합회(UKCIA) 대표 자격으로 총연 회장인 본부협회 신재균 회장과 협회 심기호 부회장이 참석했다.

축사에서 연아 마틴 상원의원은 UKCI와 협회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며 기대감을 표시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행사장에는 지난 연방 총선에서 신승을 거둔 넬리 신 의원도 참석해 협회 임원들과의 첫 상건례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행사 후 협회 참석자들은 신맹호 주 캐나다 대사, 연아마틴 의원, 넬리 신 의원 그리고 캐나다측 주요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며 우호 친선을 다졌다. 이 자리를 빌어 신회장은 매년 오타와에서 개최해온 경제세미나를 오는 5월 28일, 29일 양일에 걸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행사 후 다음날에는 같은 장소에서 캐나다 진출 한인 기업인들과 동포사회 유력 인사들이 모여 경제 관련 세미나도 가졌다.

두 나라 FTA관련해 몇가지 주요 자료를 참고삼아 소개한다. 캐나다로의 수출은 조약 발효 이후 5년간 연평균 2.7% 증가했다. 이는 전체 수출 증가율 1.1%를 넘어선다.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철 강관 및 철강선, 철강판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은 25억 8300만 달러로 FTA 발효 전인 2014년보다 19.4% 증가했다. 주변에서 부쩍 한국 자동차가 눈에 많이 띄는 현상이 2015년 두나라가 맺은 FTA의 영향임을 여실히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퀸즈파크 단독 한인 설잔치 개최

포드 수상, 편의점 술판매 재확인



▲ 행사장에 입장하는 더그 포드 수상. 그는 환영사에서 편의점 주류판매 추진을 재확인했다.

온타리오 주 의회가 한인 단독 구정 설잔치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다시 개최했다. 지난 2월 24일(월) 오후 4시 30분에 전년과 같은 장소인 주의회 본관 2층 리셉션홀에는 더그 포드 주 수상과 조성준 노인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다수의 각료,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한인 사회 지도급 인사들을 포함한 1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설 명절을 즐겼다.

행사의 사회는 정치 입문 전부터 행사 잘 보기로 소문난 조성훈 의원이 맡았으며 의원은 이번 행사 개최를 주도한 조성준 장관과 공동으로 행사 준비에 많은 힘을 보탰다. 다수의 장관 중에는 편의점 주류판매 성사를 위해 정부 차원의 사령탑 역할을 맡았던 전임 빅피델리 재무장관도 자리를 해서 눈길을 모았다. 장관은 현재 경제개발부 장관을 맡고 있다.

조 의원의 유려한 사회로 시작된 행사 기념사에서 조 장관은 접시담이 시절의 이민 초기 생활을 떠올리며 성공을 거둔 오늘이 있기까지의 역경을 자랑스럽게 묘사했다. 또한 같은 당 소속의 후배 정치인인 조성훈 의원을 격려하며 한인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발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더그 포드 수상은 조 장관과의 시의원 시절을 회상하며 오래된 친구로서 그를 존경하고 한국을 향한 조 장관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알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기회있을 때마다 자신에게 들려준다고 말했다.

수상은 이미 한국과 한인 커뮤니티에 관해 지식이 많은 지한파 인물이며 한인 이민사와 편의점의 인연에 대해서도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 연설에서 수상은 “한인 이민자들의 근면성이 커뮤니티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편의점에서의 맥주, 와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해서 한인 지역 사회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총리는 한인 커뮤니티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다.

행사는 국악 연주를 곁들이며 흥을 돋우는 가운데 두시간 가까이 진행됐으며 포드 수상도 45분이나 함께 하며 행사를 즐겼다.

한편, 이날 사회를 본 스텐 조(한국명 조성훈)의원은 자신의 후원행사를 다음날인 25일(화) 성황리에 치렀다. 토론토 다운타운에 있는 알바니 클



▲ 왼쪽으로부터 본부협회 심기호 부회장, 로드 필립스 재무장관, 본부협회 신재균 회장, 스텐 조 의원, 부동산 캐나다 이용우 사장, 한국일보 김명규 회장

럽(91 King St.E)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한인사회 유력인사들과 보수당 정치인 등 100여 명이 모여 조 의원을 성원했다.

오는 2022년의 주 총선에 대비한 지지기반 구축을 일찌감치 착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행사에는 현 집권여당의 2인자라 할 로드 필립스 온주 재무장관이 특별 손님으로 참석해 의원을 격려하고 한인사회의 전폭적 지지를 호소했다. 조 의원은 조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를 비롯한 당정 여러 조직의 예산 파트에서 중책을 맡아 활발한 활약상을 보이고 있어 정계에서도 주목을 받을 뿐 아니라 한인 커뮤니티의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 ■



Convenience U 행사 성료

캐나다 편의점 업계의 최대 잔치인 컨비니언스유 행사가 지난 3월 3일과 4일 양일간에 치러 졌다. 협회는 3월 4일 단체 참관했다. 올해도 주최측은 협회를 위한 특별 행사를 마련했으며 전년과 마찬가지로 온주 북권공사(OLG)가 스폰서로 나서 오찬을 제공하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판매촉진 설명회를 개최했다. 북권 매상 증진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은 매우 뜨거워 설명회가 끝나고 질의응답시간으로 40분이 소요됐다. 사진은 공사측 판촉담당 이사 레리 콜라 토스티(Larry Colatosti)가 회원들의 질의에 응대하는 장면이다.

향가미 베이핑 제품, 편의점 취급 금지

편의점 외면, 베이핑 흡만 차별 우대

Ontario to ban flavoured vaping products from being sold in convenience stores

- 글로벌앤메일 2월 3일자 기사 -



▲ 크리스틴 엘리엇 보건부 장관 (왼쪽)

온주 정부가 편의점, 주유소에서 취급하는 향가미 베이핑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몰고 있다. 미성년자의 접근을 차단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니코틴 함유 정도를 통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크리스틴 엘리엇 보건부 장관은 곧 각료 회의에서 관련 개정령을 상정할 계획이다.

새 규정은 그러나 성인들만 출입이 가능한 전문 베이핑 흡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들 전문 흡은 출입자의 연령 체크가 의무화되며 오직 베이핑 제품만을 취급해야 한다. 국내 모든 주정부는 사실 청소년의 베이핑 만연 사태를 다루기 위해 부심해오고 있다. 최근 수년간 워낙 급증 추세이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연방 정부는 청소년을 유혹할 만한 거의 모든 형태의 광고를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들 광고 수단에는 소셜미디어까지 포함시켰다. 그리고 올해 향가미 제품에 대한 모종의 통제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때 베이핑 제품의 니코틴 함유 상한선 정책도 언급된 바 있었다.

현행 연방법 하에서 베이핑 제품 제조사들은 캔디, 디저트 음식, 청량음료와 같은 맛이나 향이 가미된 제품들이 청소년을 유혹하는 방식으로 홍보되는 광고는 금지돼 있다. 그런데 최근 연방 보건부가 이들 전문 베이핑 흡의 연방법 위반 정도가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관련 업체들에 직접 발송한 서신에서 보건부는 조사관들이 방문한 전문 베이핑 흡의 80% 이상이 연방법을 위반하며 제품을 판매 및 판촉 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위반유형은 미성년자가 좋아할 만한 향을 어필하는 행위, 그리고 경험자의 증언이나 추천을 이용한 방식의 판촉이었다. 법에는 증언이나 추천은 사람만이 아니라 캐릭터나 동물을 동원하는 것도 포함한다.

현재까지는 노바스코시아와 PEI가 향가미 제품 금지 정책을 추진해왔다. 예를 들어 노바스코시아주는 주 전역의 모든 소매업소에서 오는 4월 1일부터 향가미 제품 판매가 금지된다. 오직 일반 담배 또는 향이 가미되지 않은 일반 전자담배만이 취급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전문 베이핑 흡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가 하면 PEI는 현재 베이핑 통제정책을 놓고 일련의 협상을 거치고 있는데 보건부 장관이 수개월 내에 향가미 제품들은 금지될 것임을 공약했다.

다시 온타리오 이야기로 돌아와 보건부 대변인 프레미스 칸씨에 의하면 온주는 베이핑 관련해 몇가지 새로운 정책들을 마무리 중에 있는데 온주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균형잡힌 정책적 접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정책은 또한 불량 제품이 나오는 지하시장을 차단하는 것까지 겨냥하고 있다.

새로 도입할 정책하에서 온주 내 편의점과 주유소는 더 이상 향가미 제품은 판매가 불허되고 오직 기존의 일반 담배와 멘솔 맛이나는 베이핑 제품만 허용된다. 그리고 이들 소매업소에서는 허용된 베이핑 제품도 니코틴 함유량에 제한을 둘 예정이다. 제한은 1밀리리터 당 20밀리그램이 최대치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B.C주에서도 제한을 두고자 정한 수준과 동일한 정도이다. 실제로 시장에 나도는 베이핑 제품의 니코틴 함유량은 높은 경우 밀리리터 당 59밀리그램까지 있다.

온주 정부가 이번에 제안하는 개정은 편의점 채널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베이핑 제품 제조사 큰손들의 제품들 예를 들면 주울(Juul), 바이프(Vype)와 같은 메이저 브랜드에 타격이 클 것이다. (*바이프는 임페리얼

(17면에 계속)

매니토바 주, 성과 연계 채권 도입

기업체와 제휴한 기발한 금연 프로젝트



◀ 사퍼스드러그마트와 손잡고 금연 프로젝트를 벌이는 매니토바 정부. 사진은 매니토바의 프리즌 보건부 장관이 지난 1월 8일 성과연계 채권도입을 설명하는 장면이다.

매니토바 정부가 국내 최대 약국체인사 사퍼스드러그마트(Shoppers Drug Mart)와 제휴해 금연을 원하는 주민 대상의 상담과 금연 보조제 공급을 약속했다. 금연 보조제는 예를 들면 피부에 부착하는 니코틴 패치, 껌 등을 의미한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월 8일 위니펙에서 캐머론 프리즌 보건부 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졌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는 주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매니토바 보수당 정부가 도입했던 이른바 '사회복지 채권'(social impact bond)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인데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회복지채권의 정체를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한다. (박스 기사 참조)

'소셜임팩트본드'(社會成果連繫債券)이란?

소셜임팩트본드(social impact bond)는 채권이라는 말이 붙었을 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유가증권으로서의 채권(bond)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보통 줄여서 SIB라는 약어로 많이 통용되며 우리말로 '사회영향채권'이라고 직역할 수도 있겠으나 의미상으로 번역하면 사회성과연계채권(社會成果連繫債券)으로 옮기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여기서 '성과'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즉, 일반 채권상품처럼 확정금리부 증권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투자자의 수령액이 달라지며 때로는 0원이 될 수도 있는 투자증권(계약), 또는 성과기반의 파생결합증권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목적인 바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투자액 전체를 투자자의 부담으로 떠안아야 하는 채권이다.

그래서 채권이라는 용어가 온당하냐 하는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여하튼 재산권임은 분명해 채권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이라 역사적 맥락에서 그냥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개념의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bond라는 단어는 그대로 사용하되 'pay for success bond', 즉 성공지불채권으로 이름을 바꾸어 부르기도 한다. 확정금리부 채권이 아니라 사업이 성공했을 때만 지급하는 채권이라는 의미이므로 내용에 더 충실한 작명이 아닌가 싶다.

여하튼 무엇으로 불리우든 캐나다에서는 매니토바 정부가 사회복지 서비스 자금 조달을 위해 민간 부문과 제휴를 한 것이 그 시작이다. 매니토바 정부는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커뮤니티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매니토바의 잠재

성을 확인하는 새로운 도구이며 민간 부문에 기존의 프로그램을 맡긴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한 노력의 한가지 방법"이라고 평했다. 매니토바는 아동 복지, 청소년 범죄와 재범률을 줄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 제도를 활용했고 사스케추완에서는 미혼모들을 위한 주택 지원을 위해 Sweat Dreams라는 SIBs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의 크레딧 유니온과 기업들로부터 1백만 달러의 기금을 모집하였다.

SIB가 처음 시작된 곳은 2010년 영국이다. 당시 영국에서 단기 복역자의 63퍼센트는 출소 후 1년 이내에 범죄를 저질러 다시 감옥으로 들어오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들의 평균 복역횟수는 7번이었다. 이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충분한 직업 훈련, 교육과 치료가 필요했지만 정부는 이런 프로젝트를 실행할 예산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토비 에클레스(Toby Eccles)라는 투자사업가였다. 그의 제안은 "그가 책임진

사람들의 재범률이 줄었을 때 정부에서 돈을 지불하도록 하라."는 것이었고, SIB 채권은 이렇게 시작됐다.

복지서비스를 정부가 아닌 시민사회의 민간단체에게 맡기고 이에 필요한 자본은 특수 목적의 채권을 발행하여 사회적 투자자, 기업, 자선단체 등을 통해 조달하지는 것이다.

쉽게 말해 민간 자금으로 골치아픈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계약한 목표를 달성하고, 이로 인해 정부가 예산절감의 효과를 달성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원금과 약정한 이자율을 돌려 받는 형태다. 물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돌려 받지 못하는 방식이므로 기존의 채권에 비해서는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아직 그 역사가 일천한 SIB 프로젝트는 "재무적 수익"과 '사회적 가치' 모두를 충족시키는 투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캐나다는 이 채권 운용을 꽤 일찍 도입한 선진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매니토바 정부의 매우 진보적인 이 채권에 파트너인 사피스측은 5개 년에 걸쳐 총 2백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장관은 "금연을 하고 싶어도 이런 저런 비용이 들어 장벽을 느끼던 흡연자들의 큰 장애요인 하나를 덜게 됐다"라고 평했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이 가능한 최대인원은 4,500명까지이며 개인 당 대략 380달러에 해당하는 혜택을 보게 된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가입자 중 최소 12%가 1년 이상 금연에 성공한다면 사피스는 최대 212만 달러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자가 12만 달러이므로 6% 채권으로 이자율이 나쁘지 않은 상품이다. 현재의 보수당 직전 정부인 신민당(NDP)정권이 니코틴 패치 등 금연 보조물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그리고 나서 곧이온 2016년 총선에서 패배했다. 새 정부는 단순히 금연 보조제만이 아니라 카

운셀링까지 결합으로써 금연 성공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이번 정책을 부각시키고 있다.

한편, 매니토바폐질환협회(MLA)는 "SIB 채권에 대해 연구해볼 것들이 여전히 많다"면서 "하지만 금연을 하겠다는 흡연자를 위한 여하한 방책도 모두 환영받아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정책에 반색을 표했다.

협회 회장 겸 CEO 닐 존스틴씨는 "금연프로그램이 모자라는 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이며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통합적으로 매달려야 할 과제"임을 강조했다. 매니토바의 흡연율은 전국 평균치 14.5%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며 흡연으로 인해 유발된 직접적 질병 치료에 소모되는 주정부 예산은 연간 2억 4,400 만 달러로 집계되고 있다. ■

<15면에 이어>

향가미 베이핑 제품, 편의점 취급 금지

토바코에서 생산) 두 회사는 일회용 제품으로 오이, 망고, 딸기, 바닐라 향이 나는 팻을 생산 판매한다.

2월 들어 주울사(Juul Labs Canada)가 민트와 일반 담배 맛이 나는 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든 향가미 자사 전자담배 제품은 일시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현재 남은 재고는 소진하겠다고 하며 연방에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때까지 생산을 보류한다는 것이다.

한편, 전국베이핑협회(Canadian Vaping Association)의 대릴 탬페스트 전무이사는 정부의 계획을 접하고 지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베이핑 제품에 대해 통제를 가해야 미성년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고 전문 베이핑 숍에는 모든 제품의 취급을 허용해야 성인 흡연자에게 일반담배보다 덜 해로운 대체물을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 편의점 업계를 대표하는 온주편의점협회

(OCSA) 데이브 브라이언즈 회장은 편의점의 이해관계에 앞서 베이핑 전문 업소를 차별 우대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회장은 최근 엘리엇 보건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향가미 제품만 특정해 차별 정책을 하는 대신 모든 업소에 대해 베이핑 제품 전시를 금한다든가 하는 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을 펼쳐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브라이언즈 회장은 "정부가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것같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국암재단(CCS) 선임정책분석관 랍 커닝햄씨는 "향가미 전자담배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이들 제품 접근을 감소시키고 법 집행을 보다 용이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번 개정 규정이 업계 전체에 확대 적용되면 더 좋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는 "지금의 조치가 모든 업소의 향가미 제품들에 대한 포괄적인 제한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고 니코틴 함유 수위에 대한 제한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



세븐일레븐, 7만개 시대

지구촌 어딘가 3.5시간마다 1개 오픈



▲ 매장 7만개 시대를 연 세븐일레븐. 한국의 매장 수도 1만개 시대에 돌입했고 진출국 17개 나라 중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이 2019년에 지구촌 매장 7만개 시대를 열었다. 세계 편의점 소매업계의 독보적인 선두주자의 기록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깨지지 않을 기록임은 분명해 보인다.

한가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세븐일레븐 가맹점포 수가 세계 최고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지구촌 거의 모든 나라를 다 뒤덮고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대부분이 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이 진출해있는 나라는 고작 17개국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면 좀 가우뿔해질 것이다. 그런데 실상이 그렇다.

2019년 세븐일레븐은 평균 3.5시간에 한개씩 매장이 오픈했다. 2019년 6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까지 집계된 숫자가 68,236개였으니 하반기에 약 2천 여개를 더 보태 7만개를 돌파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그 시간에 문을 닫는 곳도 있지만 매장 오픈만 놓고 시간대를 계산하면 그렇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해 세븐일레븐측은 “사세가 나날이 발전하면서 회사의 역할은 착한 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정립에 중점을 두고 있고 사회적 이슈들 예를 들어 환경문제와 같은 지역 커뮤니티 그리고 그 커뮤니티의 성원인 소비자들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븐일레븐 회장 겸 CEO인 조 디핀토씨는 7만개 시대를 놓고 이렇게 평했다. “93년 전에 텍사스의 오크 클리프라는 무명의 마을 작은 얼음가게에서 시작해 글로벌 편의점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 저력은 소비자 니즈에 부응한다는 끊임없는 노력의 소산으로 소비자 우선주의 철

학은 앞으로도 사훈으로 계속될 것이다.”

세븐일레븐은 올해 후반기에 인도에 최초로 진출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구가 많은 인도에 세븐일레븐이 아직 없었나 싶을 것이다. 회사측의 이 목표가 실현되면 진출국은 18개국 이 된다. 세븐일레븐은 북미주에 프랜차이즈 또는 라이선스 형식으로 모두 11800여 개가 있다. 이중 600여 개가 캐나다에 있다. 그리고 세븐일레븐의 모 회사는 일본의 세븐앤아이 홀딩스(Seven & i Holdings Co. Ltd.) 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천하의 세븐일레븐이 지난 91년에 일본 자본으로 넘어갔던 것이다. 참고로 현재 세븐일레븐이 진출해 있는 17개국은 다음과 같다. 괄호는 진출 연도이다.

홍콩(1981), 인도네시아(2008), 마카오(2005), 중국(1992), 말레이시아(1984), 필리핀(1984), 싱가포르 (1983), 한국(1989), 대만(1979), 태국(1989), UAE(아랍에미레이트; 2015), 베트남(2017), 덴마크 (1993), 노르웨이(1986), 스웨덴(1978), 호주(1977), 멕시코(1971), 캐나다(1969), 미국(1927)

* 홍콩과 마카오를 같은 중국으로 보고 17개국으로 헤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때 터키도 진출했으나 지금은 철수했다. 그리고 스페인과 영국도 과거에 진출은 했으나 지금은 철수했다.

* 매장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이다. 21,000여 개이며 수도 도쿄에만 3000여 개에 가까이 포진해 있다. 한국도 1만 개 시대를 넘었다. ■

■ KBA 협동조합

169 The West Mall, Etobicoke
(협동조합 사무실) ----- (416) 789-7544
169-175 The West Mall, Etobicoke
(협동조합 웨스트몰지점) -----(416) 867-1444

■ 복권관련

AGCO (복권 판매 라이선스 관련) ----(416) 326-8700
(800) 522-2876
Fax (416) 326-5555
OLG -----(800) 387-0104

■ 음료

Coca Cola Bottling Company ----- (800) 241-2653
Pepsi Bottling Corp. -----(905) 568-7909
(800) 387-8400
Saint Jimmy's Coffee Service ----- (416) 250-9427

■ 우유

SAPUTO(Neilson Dairy) ----- (800) 663-4724

■ 스낵

Frito Lay Canada -----(905) 460-2414
South Cove ----- (905) 829-3666
Conagra Brands Canada ----- (416) 679-4200

■ 샌드위치

Classic group of companies ----- (905) 470-1926
A Biz Gourmet(Shirley 부사장) -----(416) 665-1052

■ Meat Jerky

Great Canadian Meat ----- (905) 666-9395
Conagra -----1- (888) 639-7868

■ 초코렛 / 캔디

Nestle Chocolate -----(800) 500-5634
Mars Canada Inc -----(800) 565-0147
Hershey Canada Inc. ----- (800) 268-1304
Mondelez(Cadbury/Christie) ----- (855) 535-5648
Wrigley Canada -----(416) 442-3298

■ 아이스크림

Nestle Ice Cream -----(905) 458-3600
Ontario (800) 500-5634

■ ATM / Debit

Touch Cash -----1- (866) 391-3950
Moneris Solutions ----- 1- (877) 789-5335
1Solution -----1- (888) 554-7355

■ 잡지

Metro 360 ----- (416) 285-2050
News Group -----(905) 681-1113

■ 법률관련

변호사 이영동 -----(905) 272-4339
Best Defence (아담 유) ----- (416) 739-8887

■ 금융 / 회계 / 재정 / 보험

Bank of Canada(위조지폐 관련문의) - (888) 513-8212
신한은행 -----(416) 250-3550
외환은행 -----(416) 222-5200
이방록(회계사) -----(416) 221-2009
박효진(보험중개인)----- (416) 985-5287

■ 언론사

한국일보 -----(416) 787-1111
중앙일보 -----(416) 736-0736
Globe and Mail -----(800) 387-5400
National Post ----- (416) 383-2500
Toronto Star -----(416) 367-4500
Toronto Sun -----(800) 668-0786

■ 장비 설치 수리

종합캐쉬레지스터 -----(416) 622-2255
프로캐쉬레지스터 -----(416) 804-4075
Cool Air Cleaning ----- (416) 224-0020
Hi Cool Tech -----(416) 909-7114

■ 광고 미디어 전문 대행 회사

Adapt Media ----- (416) 856-4466

■ 기타

Kocom -----(416) 769-3532
DSC Digital System ----- (416) 255-6549
David Health International ----- (647) 726-1010
허바헬스 ----- (416) 435-5754
365 Wholesale ----- (416) 931-9002
Butterfly Fashion ----- (416) 785-5999
The Best Inventory Service -----(905) 359-8560
원도매상 ----- (416) 661-6664
DavidWholeSale ----- (416) 419-3751
78 Trading ----- (437) 777-7878
Yeno Trading ----- (647) 967-6561
용역 회사 Tyson Lee -----(647) 545-0922
Atlantic Prepaid Card -----1-(888) 479-7779





2020

Sincere Trading of KBA

MARCH *Special Sale*



Cott 2L
All Flavours Reg.\$1.19 **Spe.\$0.89**



Lassonde
Fruite 6/2L All Flavours
Reg.\$12.89 **Spe.\$7.69**



Jones
Jones Soda 12/355ml
Reg.\$14.55 **Spe.\$11.89**



Johnson & Johnson
Listerine Go Tabs 4ct x 6pack Reg.\$9.15 **Spe.\$8.05**





2⁸⁹

2⁸⁹

3³¹⁵

Mondelez

Cadbury King Size 66g-90g All Kinds Reg.\$34.59 **Spe.\$33.15**
 Chips Ahoy 300g All Kinds Reg.\$3.25 **Spe.\$2.89**
 Oreo 300g All Kinds Reg.\$3.25 **Spe.\$2.89**



3⁵⁹

2⁷⁹

4⁶⁹

Sara Lee

Cheese Cake 538g Strawberry & Cherry Reg.\$4.99 **Spe.\$3.59**
 Oven fresh Pies 1.04kg All Flavours Reg.\$5.29 **Spe.\$3.59**
 Pound Cake 304g Reg.\$3.59 **Spe.\$2.79**
 Cream Pies 55g - 765g All Flavours Reg.\$6.99 **Spe.\$4.69**



2¹⁹

1⁹⁵

1⁷⁹

Dare

Viva Puffs 300g All Flavours Reg.\$2.59 **Spe.\$2.19**
 Real Fruit Gummies 180g All Flavours Reg.\$2.09 **Spe.\$1.95**
 Traditional Candy Pegtop 200g-250g All Kinds Reg.\$1.89 **Spe.\$1.79**



1⁷⁵

Kellogg's

Pringles 148g - 156g All Flavours Reg.\$2.39 **Spe.\$1.75**



23⁴⁹

Regal Chocolate Eggs

Lion King Chocolate Surprise Eggs	\$26.99	\$23.49
Unicorns Chocolate Surprise Eggs	\$26.99	\$23.49
Incredibles 2 Chocolate Surprise Eggs	\$26.99	\$23.49
Mickey Mouse 90th Anniv. Choc. Surprise Eggs	\$26.99	\$23.49
Shimmer N Shine Choc. Surprise Eggs	\$26.99	\$23.49
Paw Patrol Chocolate Surprise Eggs	\$26.99	\$23.49
Toy Story Chocolate Surprise Eggs	\$26.99	\$23.49
Frozen 2 Chocolate Surprise Eggs	\$26.99	\$23.49
Disney Cars Chocolate Surprise Eggs	\$26.99	\$23.49
Disney Minnie Mouse Choc. Surprise Eggs	\$26.99	\$23.49
Emoji Chocolate Surprise Eggs	\$26.99	\$23.49
NHL Chocolate Surprise Eggs	\$26.99	\$23.49
Avengers Chocolate Surprise Eggs	\$26.99	\$23.49
Ultimate Spiderman Choc. Surprise Eggs	\$26.99	\$23.49

12⁷⁵



Clif

Clif Bar 68g All Flavours Reg.14.39 **Spe.\$12.75**
 Clif Builders Bars 68g All Flavours Reg.16.69 **Spe.\$14.99**



Smuckers Foods

- Smuckers Jams 250ml All Flavours Reg.\$2.69 **Spe.\$2.59**
- Smuckers Jams 500ml All Flavours Reg.\$4.55 **Spe.\$4.45**
- Smuckers Jams 310ml Sugar Free Reg.\$3.49 **Spe.\$3.39**
- Canola Oil 473ml Reg.\$3.19 **Spe.\$2.99**
- Canola Oil 946ml All Kindss Reg.\$3.69 **Spe.\$3.49**
- Robin Hood All Purpose Flour 1kg Reg.\$2.25 **Spe.\$2.09**
- Five Rose All Purpose Flour 2.5kg Reg.\$4.89 **Spe.\$4.55**
- Carnation Evaporated Milk 354g All Kinds Reg.\$1.75 **Spe.\$1.65**
- Folgers Coffee 320-326g Decaf not included Reg.\$4.19 **Spe.\$3.89**



McCain

- French Fries 900g Reg.\$2.69 **Spe.\$1.99**
- Xtra Crispy Fries 650g Reg.\$3.09 **Spe.\$2.49**
- Premium Super Fries 650g Reg.\$3.09 **Spe.\$2.49**
- Xtra Crisp Seasoned Fries 650g Reg.\$3.09 **Spe.\$2.49**
- Deep'n Delicious Cakes 510g Reg.\$4.79 **Spe.\$3.99**
- Deep'n Delicious Fruit Pies 680g Reg.\$4.79 **Spe.\$3.99**
- Delicious Cream Pies 400g Reg.\$4.79 **Spe.\$3.99**
- Pizza Pocket 3pack Reg.\$3.49 **Spe.\$2.49**



Campbells

- Red & White Soup 284ml
- Tomato, Vegetable, Chicken Noodle, Cream of Mushroom Reg.\$1.39 **Spe.\$0.89**
- Soup for Cooking 284ml All flavours Reg.\$1.69 **Spe.\$1.39**



Clover Leaf

- Premium light Yellow tuna 142g All Kinds Reg.\$2.19 **Spe.\$1.69**
- Skipjack Tuna 170g All Kinds Reg.\$1.99 **Spe.\$1.45**
- Value Added Tuna 85g All Flavours Reg.\$1.65 **Spe.\$1.45**
- Brunswick Seafood Snacks 92g - 100g All Flavours Reg.\$1.55 **Spe.\$1.25**
- Brunswick Sardines 106g All Flavours Reg.\$1.35 **Spe.\$1.25**



Smuckers Pet

- Sausage 196g All Flavours Reg.\$1.75 **Spe.\$1.59**
- PUP-peroni 75g All Flavours Reg.\$1.75 **Spe.\$1.59**
- PUP-peroni 158g All Flavours Reg.\$2.65 **Spe.\$2.45**
- Jerky Treats 170g Reg.\$2.65 **Spe.\$2.45**
- Milk Bone 450g-500g All Flavours Reg.\$2.45 **Spe.\$2.29**
- Milk Bone Soft & Chewy 113g All Flavours Reg.\$1.75 **Spe.\$1.55**
- Meow Mix 500g Reg.\$2.15 **Spe.\$1.85**
- Meow Mix 1Kg Reg.\$6.19 **Spe.\$5.39**



Nestle Purina

- Cat Chow 1.42kg~2kg All Kinds Reg.\$7.49 **Spe.\$6.89**
- Cat Chow 500g Reg.\$1.89 **Spe.\$1.59**
- Fancy Feast Wet Cat 85g All Kinds Reg.\$17.49 **Spe.\$14.79**
- Dog Chow 2kg Reg.\$5.09 **Spe.\$4.49**

19⁹⁹



Cascades

April Soft Bathroom Tissue 4's
Reg.\$21.49 **Spe.\$19.99**
Fiesta Paper Towel 2'S
Reg.\$19.99 **Spe.\$18.99**

18⁹⁹



Tampax

Regular 10's Reg.\$16.89 **Spe.\$15.19**
Super 10's Reg.\$16.89 **Spe.\$15.19**
Super Plus 10's Reg.\$16.89 **Spe.\$15.19**

15¹⁹



Always

Always Ultra Slender w/ Flexi-wings 18's	4.69	3.95
Always Ultra Regular Thin w/ Flexi Wings 10's	3.09	2.95
Always Ultra Overnight w/ Flexi Wings 14's	4.69	3.95
Always Ultra Regular w/ Flexi Wings 18's	4.69	3.95
Always Thin Ultra Long w/ Flexi wings 16's	4.69	3.95
Always Ultra Regular 22's	4.69	3.95
Always Thin Maxi Regular w/Flexi wings 10's	3.09	2.95
Always Ultra Thin Long w/ Flexi wings 14's	4.69	3.95
Always Ultra Thin Reg 16's	4.69	3.95
Always Ultra Thin Long 20's	4.69	3.95



169 The West Mall, Etobicoke
T(416)867-1444 / F(416)789-5013

Business Hours

Mon. 06:30 - 17:00
Tue. 06:30 - 17:00
Wed. 06:30 - 17:00
Thur. 06:30 - 17:00
Fri. 06:30 - 17:00
Sat. 06:30 - 16:00
Sun. 11:00 - 17:00



OKBA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169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Tel(416)789-7891 Fax(416)789-7834